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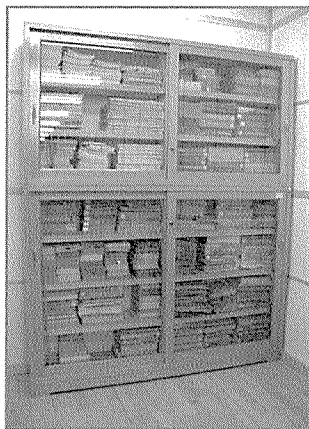
21세기 농업과학기술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선도하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을 다녀와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은 1906년부터 도서관업무를 시작하였다. 을 7월 신축 개관한 도서관 전경>

국내 농업분야 100년 자료의 보고



<고서자료실에는 1백년 전에 발간된 조선시대 농업관련 고서가 영구 보존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은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권업모범장이 1906년 수원에 설립됨과 동시에 농촌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업무를 시작, 1962년 농촌진흥청으로 직제가 개

편되었고, 1972년에 도서관 건물이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문헌정보 서비스를 하게 되었으며, 2005년 7월 현재의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은 1백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대표 농업전문도서관답게 농업 관련 정보를 총체적·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용케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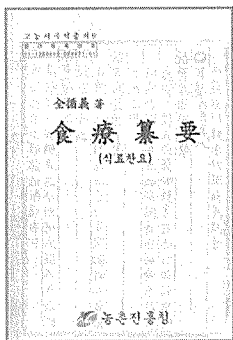
우선 도서관은 1906년 이후 발간된 농촌진흥청발간보고서 및 조선시대 농업관련 고서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완벽한 항온항습시설을 갖춘 고서자료실과 북한농업연구를 위해 198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북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소장자료 전체에 대한 서지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촌진흥청 발간자료 원문전체를 디지털화하여 그 정보를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da.go.kr>)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속연구원은 물론 농업관련대학 교수 및 학생, 농업인, 일반 국민 등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고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이길섭 실장은 말하고 있다.

<농업과학도서관 주요 현황>

연간예산	약 10억원
DB구축 현황	도서관 소장도서 DB 210천건 한국농업학술지 DB 69,375건 농진청 발간도서 DB 6,688건 농업고서 DB 789건 박사학위 논문 1,737권 농진청 발간 시험연구보고서 78,385건
직원규모	9명
DB구축 현황	단행본 210천권 프린트 잡지 184종 전자잡지 4,700여종 Web DB 8종
북한자료실	북한관련문헌 30종 216건 보유

옛 농서 국역 발간 10개년 사업에 10억 원 투자

도서관은 기본적인 정보서비스 이외에 농업 관련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한국 농업고농서 국역사업' 'AGRIS 사업' '한중 문헌정보 교류' 등과 같은 장기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편집 기획을 맡고 있는 '한국 농업고농서 국역사업'의 최근간 저서인 '식료찬요(食療纂要)', 2010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하여 총 74종이 국역될 예정이다〉

'한국 농업고농서 국역사업'은 선현들의 뛰어난 농업기술을 현대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에 걸쳐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국역가치가 높은 농업고서를 대상으로 한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색경』을 시작으로 2004년 『식료찬요』까지 총 9종 10권이 번역되었으며, 2010년까지 총 74종


이 발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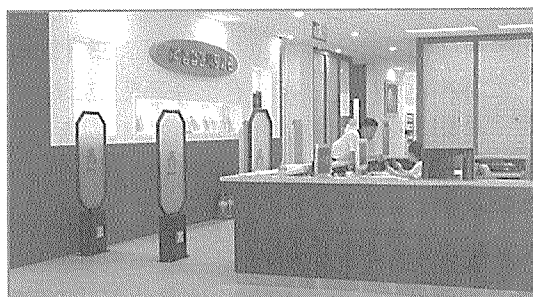
'AGRIS'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문헌데이터베이스(130개국 14개 국제기구 가입)이며 농촌진흥청이 한국을 대표하는 관계로 도서관에서는 국내 농업관련 학회지 64종의 영문 DB를 입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문헌정보 교류를 위해 중국농업과 학원과 1998년부터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 신축 이전을 계기로 농업과학기술의 정보화 더욱 강화

도서관이 절반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경영정보관은 지난 2003년 7월에 착공,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7518㎡(약 2274평) 규모로 총 98억 8400만원이 투입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15일 개관한 농업경영정보관에 도서관 이외에 최신 전산시스템을 갖춘 정보교육장, 회의실, 원격상담실, 전산지원실 등의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하드웨어 기반을 조성하였다.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이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식과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농촌의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국내의 농업기술에 관한 활발한 문헌정보의 교류와 전문 정보화 인력 양성을 선도하는 도서관의 행보에 우리 농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백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도서관의 앞날에 성공만이 있기를 빌어본다.  [글 : 박경아, 사진 : 최인경]



〈적은 인력으로 인한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RFID 시스템 도입으로 보완하였다〉



〈2005년 7월 15일 신축 도서관 이전 개관을 기념하여 '농업과학기술도서관 전시회' 및 '농촌진흥 공직자 저술 우수저서 선정 시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